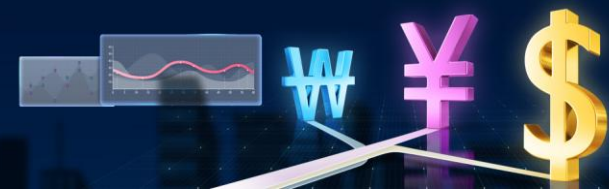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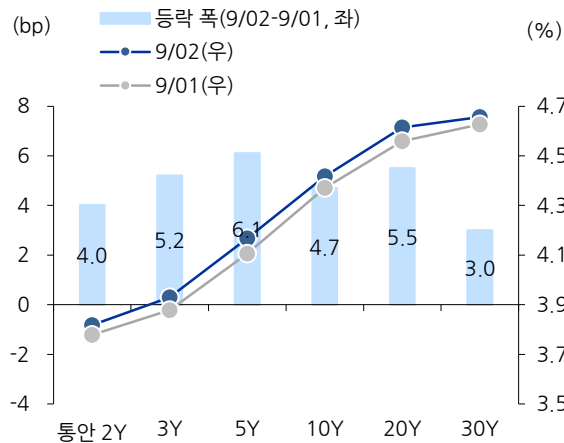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9/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930%	5.2	11.4	97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418%	4.7	13.0	103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8.8	49.3	47.2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95	-18.0	-37.0	-249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4.75	-41.0	-119.0	-817.0
	미국채 2년물	4.370%	-2.7	15.8	89.8
	미국채 10년물	4.780%	-1.9	13.2	61.1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1.0	40.1	43.5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85%	3.0	13.7	53.0
	호주국채 10년물	5.203%	5.3	19.3	4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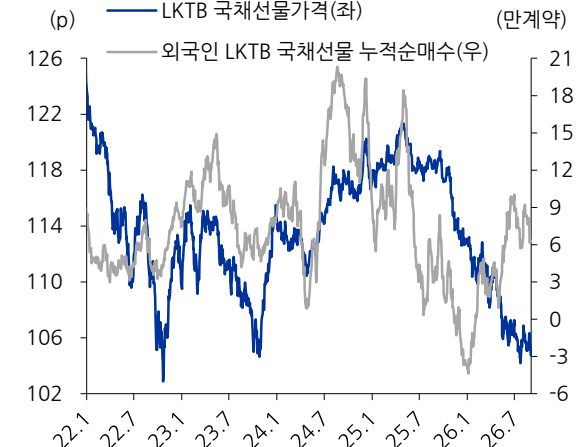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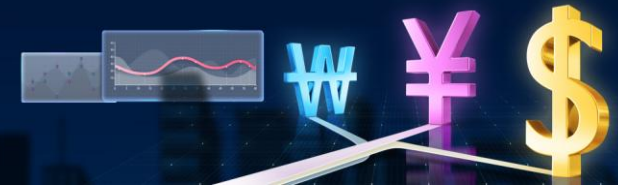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글로벌 투자심리 부진 및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영향.
- 개장 전 공개된 국내 8월 물가가 다시 3%대로 상승하면서 투자심리 훼손. 정부는 9월 물가가 8우리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한은이 근원물가의 기조적 상승을 언급하며 금리 빠르게 상승 출발. 국고 3년 3.9% 돌파.
-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글로벌 채권투자 심리 부진 지속.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가 대규모로 이어졌으며 아시아 장에서 국자유게게 90 불대로 올라선 것도 부정적 요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변동성 높은 보합 마감. 장중 한 때 10년 금리 4.82%까지 상승.
- 개장 초 ADP 민간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, 3개월 연속 축소되면서 금리 빠르게 하락.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고,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금리 하락을 견인.
- 이후 전쟁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90불대에 머물자 미국 장기금리 하락폭 반납하며 상승. 장중 한 때 4.8%를 웃돌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폭 반납하며 보합권 회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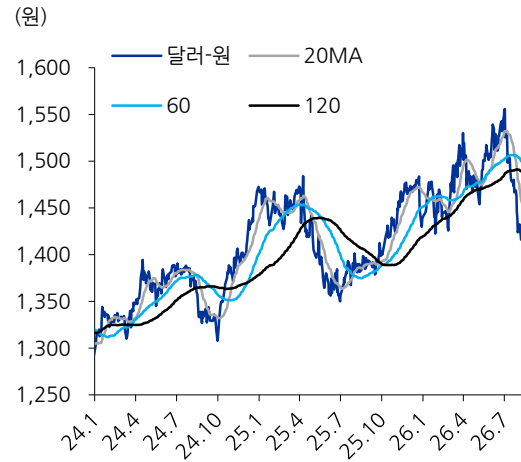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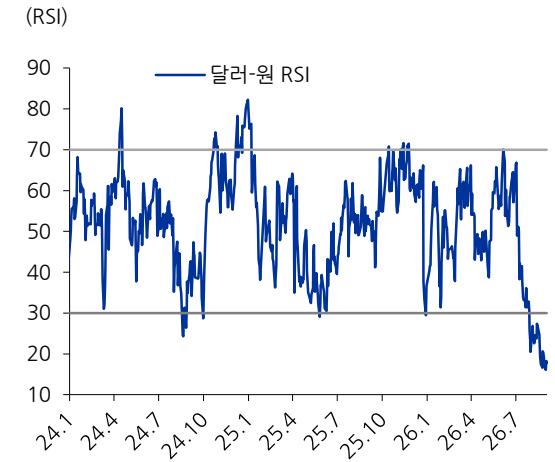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68.70	-0.1%	-1.2%	-4.9%
	달러지수	99.56	-0.1%	0.4%	1.3%
	달러/유로	1.16	0.0%	-0.5%	-1.3%
	위안/달러(역외)	6.72	-0.1%	-0.1%	-3.8%
	엔/달러	158.71	-0.9%	-0.4%	1.3%
	달러/파운드	1.35	-0.2%	-0.8%	0.2%
	헤알/달러	5.09	-1.1%	-1.2%	-7.7%
상품	WTI 근월물(\$)	91.01	0.9%	10.7%	58.5%
	금 현물(\$)	4,387.42	1.4%	-4.5%	1.6%
	비트코인(\$)	77,625	0.1%	-1.1%	-11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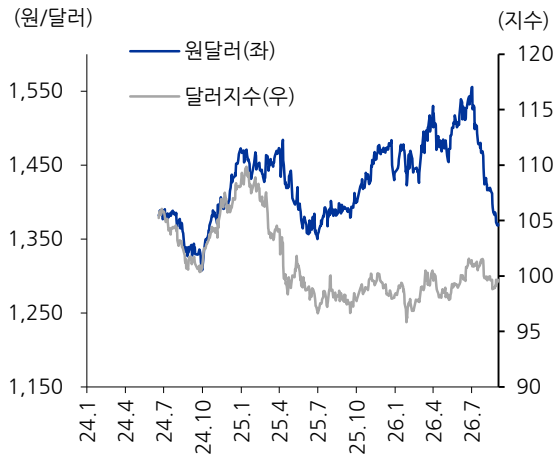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와 엔화 강세 연동으로 -1.70원 낮은 1,368.70원 마감(야간 1,359.20원).
- 미국의 이란 추가 공습 등 중동 리스크 상승에도 수출 기업 네고물량 출회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.
- 한편 BOJ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방 위험에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, 다카타 위원(매파)은 일정 속도에 매이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. 이에 9월 BOJ 인상 가능성 추가 반영되며 달러-엔은 오후장 159.4엔대까지 하락, 원화 강세를 지지.
- 달러-원은 야간거래에서 엔화가치 급등 속 -9.50원 추가 하락. 美日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엔화 강세와 美 ADP 민간고용 부진 속 하락(DXY -0.1%).
- 달러-엔은 전일 BOJ 인사의 매파적 발언 이후 아시아 장 하락에 이어, 뉴욕장에서 158.7엔으로 급락. 일본 또는 미국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 전 거래기관에 환율을 문의하는 '레이트체크'가 있었을 가능성 제기됨.
- 한편 美 8월 ADP 민간 고용은 +3.8만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(+4.7만명)을 하회,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.
- 美日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, 중동 리스크 및 높은 美 국채금리 등 달러 상하방 요인 상존. 8월 고용보고서(9/4)에 따라 9월 연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리프라이싱 이루어지며 달러 방향성 결정될 것.